

온가족 즐기는 동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광주시립오페라단 19~20일 첫 전막 공연

윤하나·장유리 등 주연...시립발레단·카메라타 전남 출연

지난해 창단한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창단기념 오페라 갈라에 이어 2018년 첫 전막 오페라를 준비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균)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선보인다. 19일 오후 7시30분, 20일 오후 3시·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페라단은 겨울하면 연상되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처럼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헨젤과 그레텔'도 매년 겨울 무대에 올려 오페라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만들 계획이다.

가정을 위한 동화집' 중 한편으로 작곡가 헨핑딩크가 누이 아델하이트 베테의 대본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신 동안 집안일은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 헨젤과 그레텔은 어머니께 혼이 난다. 그들은 저녁식사로 먹을 딸기떡을 따라 나갔다가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한다.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을 뜯어 먹다가, 아이들을 잡아 생각과자로 만든다는 마녀에게 붙잡히는 위기에 처하지만 그레텔의 지혜로 모두 풀려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오페라단은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진행했고 출연 성악가를 선정했다. 헨젤 역에는 소프라노 윤하나·김은혜, 박선영씨가 캐스팅됐으며 그레텔 역으로는 소프라노 장유리·이경진·오신영이 출연한다. 또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 역에 유진호·김지영·염중호, 어머니 역에 정유진·김하늘, 마



윤하나

김은혜

장유리

녀 역에 정해나·문주리, 요정 역에 박수연·양송이·신은선이 출연한다.

연출은 이범로 강원해오름오페라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박인욱 전남대 교수 지휘로 35인조 카메라타 전남 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안무는 노윤정 광주시립발레단원이 맡았다. 그밖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합창 지도 운영문)과 광주시립발레단도 출연한다.

정갑균 예술감독은 "대사를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 어린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새롭게 각색했다"며 "시립오페라단만

의 작품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1회의 단발성 공연으로 끝내지 않고 매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연은 4월 7~8일 열리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가 장식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여섯 빛깔 동화 '구리구리 똥개구리'

동화 작가 양정숙 씨가 첫 번째 동화책 '구리구리 똥개구리'(정개구리)를 펴냈다.



모두 여섯 편의 동화가 실린 작품집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여섯 빛깔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집안으로 들어와다가 번개가 빠진 개구리의 탈출기를 그린 '구리구리 똥개구리', 로봇 청소기와 대결을 벌이는 고양이 이야기 '냥이와 뽀니', 할머니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유기견을 그린 '알롱이'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아빠의 감시를 피해 할머니의 데이트를 돕는 소녀를 다룬 '투투데이', 꿩들의 이야기를 매개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까사이의 꿈', 흥부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다시 쓴 흥

부전 이야기' 등은 잔잔한 감동과 유쾌함을 준다.

작품들은 모두 탄탄한 줄거리를 토대로 하고 있어 읽는 맛이 선사한다. 각각의 동화는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풀어놓은 다채로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양 작가는 "어린 시절 할머니는 손주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외할머니와의 추억은 잊을 수가 없다"며 "그 때문인지 나도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 결국 동화작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작가는 조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광주교육대 아동문학교육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동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엄마 이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재밌당가', 그림 동화 '새봄 음악회'를 발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2월초까지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사무처장 오영성)은 문화예술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2018년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간연계형 창작활동지원사업', '국립문화예술교류지원', '공연예술작품제작지원', '남도문화예술기획사업' 등 모두 6개 사업으로 총 29억42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자부담(10%이상)을 폐지하고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먼저 남도문화예술기획사업은 남도문예르네상스기획 분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영상기록화사업은 영상기록을 정보화해 활용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정보화사업으로 개설했으며 청년문화기획자,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이 남도문화예술기획사업으로 확대됐다.

휴식년제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개인은

격년제, 단체는 사업특성에 따라 3~4년 연속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18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한 해 지원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7일까지다.

2018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생활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세시풍속 마을문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12억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며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담양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 16일 오후 2시 여수전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 17일 오후 2시 무안 남도소리유희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문의 061-280-5823~30, 061-280-5842~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21세기에는 관람객들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미술관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한 예술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니콜라스 세로타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장(69)은 "미술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선 리더의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8년부터 테이트모던을 이끌어 온 그는 이날 미술관 신관 증축사진을 보여주며 "신축 빌딩의 2개 층을 관객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

구용 문화지구(WKCD)의 M+미술관에 내놓았다. WKCD는 홍콩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구용 해안반도 12만 평에 조성하는 국제문화사업으로 규모나 콘텐츠 등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전당)과 비교되는 곳이다. 율리 지그가 M+미술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게 된 데에는 WKCD 초대 수장이었던 마이클 린치(전 호주 시드니오페라 하우스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당장 5차 공모가 또 무산됐다. 2015년 11월 전당개관 이후 2년 2개월에 걸쳐 실시한 다섯 번의 공모가 '적격

해도 너무한 '전당장 공석'(空席)

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작년 가을, 필자는 세로타 관장의 '아심직'이었던 테이트모던 신관(블라바트니크 빌딩)을 찾았다. 미술관 신관 프로젝트에 막대한 기금을 쾌척한 사업가 레오나르도 블라바트니크의 이름을 딴 미술관은 관객과 예술이 만나는 놀이터였다. 지난 2009년 세로타 관장이 청사진을 내놓은 지 7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장수 관장으로 치자면 필립 드 몬테벨로(82)를 이길 사람이 없다. 1977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술관의 꽃'으로 불리는 컬렉션을 다수 유지했다. 파울 클레 작품을 필두로 인상주의 컬렉션, 루벤스, 베르메르, 반 고흐 등에 이르기까지 내로라하는 걸작들을 품에 안았다. 30년간 미술계 큰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 기증을 이끌어 낸 덕분이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인 율리 지그(72)는 40년간 수집한 중국현대미술 작품 1500점을 홍콩 서

자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전당장 공석사태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광주 문화수도 조성의 컨트를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문화전당 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 원장의 공석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전당장 공석사태에 따른 업무 공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당 정상화와 옛 전남도청복원 등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새 정부는 오히려 옛 전남도청의 복원현안이 진전될 때까지 전당장 선임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이다. 옛도청복원이 간단치 않은 사안임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장 없는 전당으로 방치하겠다는 말이다.

세상에 오래 비워두 관장은 '자리'는 없다. 전당장의 장기공백은 업무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혹시 정부가 전당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문학들' 신인상에 전격 시인...16일 시상식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들'이 제14회 신인상 시상식 및 신년회를 오는 16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구 가톨릭회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다.



신인상 수상자는 시 부문 전결(58·사진) 씨로 당선작은 '물'의 북'외 4편, 신인상 심사를 맡은 고재종(시인), 나종영(시인), 김형중(문학평론가) 심사위원들은 "마치 전각을 하듯 고풍한 흔적이 응어리처럼 단단한 느낌을 준다"고 평한 바 있다.

문의 010-2680-9426. 박성천기자 skypark@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